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내의 다문화와 다양성

Awilda Guadalupe, OFS

우리는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를 프란치스칸 성소로 부름 받은 우리 지역 내의 모든 소수 민족을 환영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다른 문화 또는 인종의 형제자매들을 지역의 형제회로 반가이 받아들여, 함께 풍성해지고, 온전히 포함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인간은 오로지 문화를 통하여 참되고 완전한 인간성에 이른다는 것이 인격이 지닌 특성이다.”(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53) 그리고 사람의 문화를 빼앗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한 그의 전임자들과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을 되풀이했습니다. 친교는 다른 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다양하고 단합된 한 가족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정의와 관계의 고리는 관계에 기반을 둔 개인적인 관점과 행동을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의 모임은 문제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형제회의 신임 다문화 평의원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계획은 각 지구 내에 다문화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구 형제회장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문화 위원장에게 특정 인종, 민족, 문화 또는 언어 그룹으로 이루어진 지역 내의 본당을 확인하고, 이중 언어로 된 "Come and See"같은 것을 선보여 형제회의 성소를 가진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미국 내의 모든 회원들이 모호한 표현이 없는 동일한 자료로 양성받을 수 있도록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할 양성 자료들을 계속 분별하고, 다른 인종의 형제회가 구성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다루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지도자들, 그리고 OFS 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증진하여, 공동체 경험을 깊이 하고 회칙 13 조가 말하듯이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을 '그들과 우리'가 아니라 '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많은 자질, 특히 육화되고 활기찬 신앙의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